

브라질 Brazil



I. 투자환경위험 평가 결과

투자환경위험수준

 주의



금년 초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권은 연금제 개혁 및 재정건전화, 공기업 민영화, 세제 개혁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하였으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구조개혁 여건 마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환경위험 수준을 '주의'로 평가

평가분야



투자동향 10% 	국가위험도 40% 	투자여건 50% 
--	---	--

평점기준






평점산출내역



분야별 평점(위험수준)



투자동향(10%)		보통	국가위험도(40%)		주의	투자여건(50%)		보통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52.0	50.0	44.0	48.5	51.5	52.5	50.3	55.0	49.6

종합평점(위험수준)

보통		주의		주의	
2017년	49.7점	2018년	53.2점	2019년	50.2점



II. 주요 시장 동향·제도 변화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파 정권 집권으로 공기업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 기대 • 단, 여당의 의회 점유율이 낮고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협상 능력 결여시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 곤란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2.1% → 0.8% (브라질 정부 : 2.5% → 0.81%) •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GDP 대비) : -6.8%('18) → -7.3%('19) • 브라질 정부, 내수 진작을 위한 유동성 공급안 발표(420억 헤알 규모) • 연금 개혁안 하원 통과('19년 중 상원 의결 예상) : 10년 간 공공지출 약 9.3천억 헤알 절감 기대
<p>1.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규제)</p>	<p>유지</p> <p>대부분의 산업에 외국인투자 허용, 자유무역지대 세제혜택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지업종 : 보건서비스, 우편·전신, 원자력, 항공우주산업 - 투자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신문·방송업, 해운업 * '19년 5월부터 브라질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 100%(종전 한도 20%) 취득 가능 ※ 브라질 최대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소득세 최대 75% 감면과 수입관세(최대 88% 감면), 공산품세, 사회보장세 등 세제 혜택 * 세제혜택 종료 시기를 기존 '23년에서 '73년까지 50년 연장 <p>인프라 부문 민영화 및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인프라 투자 촉진 프로그램(PP1)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18년 중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송배전사업 등 124개 사업 완료 • 2019년 5월 철도, 공항 등 59개 사업 추가 발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 추진 계획)
<p>2.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p>	<p>유지</p> <p>신정권 취임 이후 헤알화 환율은 대체로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연금제 등 정부 개혁안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헤알화 가치에 악영향 우려 - 미 달러당 헤알화 환율 : 3.26('16) → 3.31('17) → 3.88('18) → 3.81('19.7) ☞ 중앙은행은 '19년말 3.75헤알 예상
<p>3. 조세제도 (법인세)</p>	<p>유지</p> <p>복잡한 조세구조와 고율의 세금, 중복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의 복잡한 세제와 높은 세율은 '브라질 코스트'로 불리며 부정부패와 함께 기업경영에 최대 장애 요인 • 정부는 세제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나, 재정적자 규모 감안시 근시일 내에 추진은 어려울 전망



4.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유지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 속에 기준금리 인하 단행

- 기준금리는 한때 14.25%에 육박했으나,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2차례 연속 인하 후, 2019년 7월 역대 최저 수준인 6.0%로 인하
 -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노력 뒷받침 등 고려
- 기준금리와 실제 시중금리의 차이로 실질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
 - 2018년 시중은행 평균 대출이율은 연 39.1%(17년 연 46.9%, World Bank 발표) 수준으로, 이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정부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앞 대출금리 인하 요구 중이나, 상환 리스크, 높은 세율, 지급준비율 부담 등 고려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

5.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해고/ 노사관리)

유지

고용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나 우수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

- 전체 근로자는 124백만 명 수준으로 저숙련 근로자가 대부분 점유
-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개선 중 : 12.7%(19.1분기) → 12.0%(19.2분기)

노동개혁법안 통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121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통과('17년 11월 발표)
 - 근무조건 유연화 : 탄력근무제 강화, 휴가 사용 유연화, 재택근무 도입 등
 - 아웃소싱 법제화 : 아웃소싱 고용 가능 분야를 지원업무에서 모든 업무 분야로 확대,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아웃소싱 업체가 우선 부담
 - 노조가입비 납입의무 면제 → 단체교섭 건수가 4,378건('17년)에서 3,269건('18년)으로 감소

6.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개선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대외공동관세율(0~35%)을 적용

* 대외공동관세 : 역외국에 대해 적용되는 공동관세

신임 정권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노선 추진 중

- MERCOSUR-EU 간 FTA 체결 합의('19.6월)
 - 전 세계 GDP의 25%에 달하는 거대시장 탄생, 상호 수입관세를 10년에 걸쳐 점진적 철폐
- MERCOSUR는 EFTA(~'19년말),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21년말)와도 FTA 협상 진행 중
- 2017년 OECD 가입신청서 제출 및 준비위원회 설치·운영('19년) 중

(붙임)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I. 외국인투자 동향

1. 직접투자 실적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직접투자 실적



투자누계

투자건수 누계

292건



투자총액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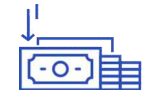
8,226백만 달러



주) 2016~2018년은 해당연도 실적, 투자누계는 2019년 3월말 기준 전체 누계 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실적

대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II. 국가위험도 평가

1. 국가신용등급

구분	2017	2018	2019.8
한국수출입은행	C2	C2	C2
OECD	5	5	5
Moody's	Ba2	Ba2	Ba2
Fitch	BB	BB-	BB-

2. 단기유동성위험

구분	총외채/총수출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ECA거래실적 (OECD)(%)
OECD권고	120% 이하	3개월 이상	15% 이하	100% 이하	-
2017	244.0	15.4	38.7	19.7	7.1*
2018	223.6	13.8	35.9	21.0	11.2**

자료) OECD
 * 2017년 6월 기준
 ** 2018년 6월 기준

3. 단기유동성위험 진단점수

구분	수용위험 (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2018.5	3.0	3.0	2.5
2019.5	2.5	2.5	2.5

주) 1. PRS, ICRG 기준
 2. 진단점수는 0~4점(0.5단위) 체계로 0은 '매우 높은 위험', 4점은 '매우 낮은 위험'을 의미함



Ⅲ. 투자여건 평가

1.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7	2018
1 창업(Starting a Business)	176/190	140/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70/190	175/190
3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45/190	40/190
4 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131/190	137/190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105/190	99/190
6 소액투자자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43/190	48/190
7 조세납부(Paying Taxes)	184/190	184/190
8 대외무역(Trading Across Borders)	139/190	106/190
9 계약실행(Enforcing Contracts)	47/190	48/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80/190	77/190
종합순위	125/190	109/19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 글로벌경쟁력 지수

구분	순위	구분	순위
	2017		2018
1 제도(정책, 시스템)	109/137	1 제도(정책, 시스템)	93/140
2 인프라스트럭처	73/137	2 인프라스트럭처	81/140
3 거시경제 안정성	124/137	3 ICT 도입	66/140
4 보건·교육	96/137	4 거시경제 안정성	122/140
5 인력관리(연수)	79/137	5 보건	73/140
6 상품시장 효율성	122/137	6 기술(교육)	94/140
7 노동시장 효율성	114/137	7 상품시장	117/140
8 금융시장 발전수준	92/137	8 노동시장	114/140
9 기술수준	55/137	9 금융제도	57/140
10 시장규모	10/137	10 시장규모	10/140
11 기업 발전수준	56/137	11 기업 역동성	108/140
12 R&D 혁신	85/137	12 혁신 역량	40/140
종합순위	80/137	종합순위	72/140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3. 시장동향·제도 변화

정성평가

종전평가 대비	평가				
	매우개선	개선	유지	악화	매우악화
투자정책			✓		
외환제도			✓		
조세제도			✓		
금융제도			✓		
노동제도			✓		
무역제도		✓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정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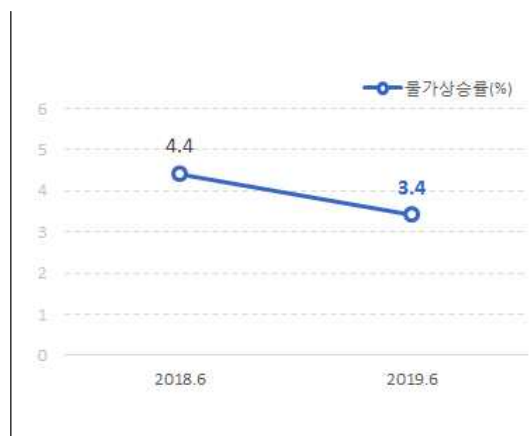
환율(미달러대비)



2018.6	2019.6	증감률
3.78	3.86	2.1%

주) 해당월 평균 환율

물가상승률



2018.6	2019.6
4.4%	3.4%

주) 전년동월 대비 변동